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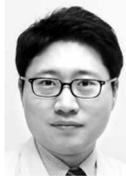


光州日報·전남대병원 공동주최 **헤마가 있는 시민건강강좌** (92)

신장이식

전남대병원 신장내과 김창성 교수

대한내과학회 회원
대한신장학회 회원
대한이식학회 회원



콩팥 이식 생존율 90%...환자도 만족

노령인구 급격 증가 속
만성 콩팥 환자 갈수록 늘어
신장이식 대기자 1만4천여명
뇌사자 공여기준 확대 절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배설하고 체액 및 산 염기, 전해질의 평형을 조절하는 기관으로써 없어서는 안 될 장기이다. 하지만 노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당뇨와 혈압의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당뇨와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콩팥 기능을 더욱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기능이 감소하거나 신기능이 감소하지 않더라도 단백뇨, 혈뇨가 지속적으로 보이거나 신장 조직 검사나 영상학적 검사상 이상이 3개월 이상 지속 될 경우 만성콩팥병증이라 한다.

◇콩팥 기증 대체 요법들=만성콩팥병증은 신장 기능에 따라 1기부터 5기까지 나눌 수 있는데 4기나 5기로 진행을 하면 투석이나 이식을 고려해야 하고, 만성콩팥병 5기 또는 투석 및 이식을 시행한 경우 말기신부전이라 한다.

양측 콩팥 기능이 감소하면 요독 물질이 체내에 쌓이고, 소변량 감소로 폐부종 등이 발생해 생명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콩팥 기능을 대체하는 요법이 필요하다. 그것이 혈액 또는 복막 투석 및 신장이식이다.

혈액 투석이란 투석기라는 기계장치를 이용해 혈액에 있는 노폐물과 수분을 투석막을 통해 배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통 1주일에 3회 4시간 시행하여야 한다.

복막 투석이란 복강 내로 도관을 삽입하여 복막을 통해 우리 몸의 노폐물과 수분이 복막액으로 배출시키는 방법이지만 이 역시 복막염의 위험성 등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신장이식은 신체제 요법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수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신장 이식을 받은 사람도 성공적인 이식 후에는 건강인과 비슷하게 정상적인 직장 및 가정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신장이식=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존율에 있어서 투석환자의 5년 생존율이



김창성 신장내과 교수가 콩팥 기능 감소에 따른 증상과 치료 및 수술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70% 정도이지만 신장이식 후에는 90% 이상 생존율을 보여 수명 연장이 가능하며, 삶의 질에 있어서도 투석에 비해 신장이식 후에 체형이나 외모 면에서 만족도가 높고 빈혈, 말초 신경염 및 성기능 저하 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든 말기신부전 환자가 신장이식을 할 수 없으며 연령이나 직업, 원인 신질환, 신장 이식 공여자 유무, 경제적 상태 등을 고려해 자신에 맞는 적절한 신체제 요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장 이식은 크게 혈연이나 부부가 직접 신장을 기증하는 생체 신장이식과 뇌사자 판정을 받은 자가 기증하는 뇌사자 기증 신장이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식을 받는 수혜자는 최근에 악성종양이나 급성 감염, 약물 중독, 간경화증, 심장질환 등이 있으면 이식을 받을 수 없지만 절대적인 연령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65세 이상은 다른 투석치료 효과와 비교하고 동반 질환 유무를 검토한 후에 이식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생체 이식 공여자는 다른 질병 상태가 없어야 한다. 최근에는 면역 억제제의 발

달로 수혜자와 공여자의 혈액형이나 조직형이 맞지 않아도 이식이 가능하다. 혈액형 불일치 신장이식은 국내에서 2007년 처음 시행된 이래 2011년 기준으로 13개 센터에서 248건의 신장이식이 이루어졌고 생체 신장이식의 13.8%를 차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생체 신장이식에서 혈액형 불일치가 약 30%인 것을 감안할 때 혈액형 불일치 신장이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직접 생체 신장을 이식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등록을 하고, 뇌사자 이식 대기자 선정 기준에 따라 뇌사에 적합한 콩팥이 나오길 기다려야 한다. 혈액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평균 4.7년을 대기해야 한다. 대기 기간이 긴 이유는 2013년 뇌사자 신장이식 건수가 750명이었으나, 이식 대기자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2013년에는 신장이식 대기자가 1만4181명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뇌사자 신장 공여자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해 뇌사 기증자가 60세 이상이거나 고혈압, 혈청 크레아티닌이 1.5mg

이상 또는 사인이 뇌혈관 병변이 있더라도 이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뇌사자의 공여 기준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신장 이식 후 관리=신장 이식 후에는 처방된 면역 억제제의 종류를 숙지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잘 복용해야 한다. 면역 면억 억제제를 임의로 중지하면 거부 반응이 생겨 이식한 신장이 손상될 수 있다. 또한 거부반응 뿐만 아니라 신장 이식 후 악성 종양이나 심혈관계 질환, 감염, 원발 질환의 재발,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증, 골질환, 요로 감염 등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정기적인 검진과 함께 감염 관리를 위해 사람 모이는 곳이나 애완동물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을 잘 씻어야 한다.

그리고 고열이나 오한, 심한 근육통, 이식 신장 주위의 통증, 소변량이 감소하거나 올라색으로 보일 때, 몸이 붓거나 숨이 찰 때, 혈압이 상승할 때, 구토, 설사, 복통이 있거나 혈변을 볼 때에는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이러한 수칙을 잘 준수한다면 이식 받은 신장을 보다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정리=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정명호 교수 '명의' 출연

심근경색증 환자 전국 최다 치료...진료·시술 등 활영

EBS 의학다큐프로그램

내달 4일 밤 9시 50분 방영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정명호 교수가 EBS의 의학다큐프로그램인 '명의 3.0(이하 명의)'에 출연한다.

EBS는 정 교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심근경색증 환자를 치료하고, 대한심장학회의 한국인 급성 심근경색증 등록연구 총괄 책임 및 수많은 연구와 논문 발표 실적 등 전국 최고의 의술을 펼치고 있어 '명의'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BS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정 교수의 진료, 심장중재술, 연구 장면과 시술 받은 환자의 생활 등 다양한 내용을 촬영했으며, 7월 4일 밤 9시50분에 방영할 예정이다.

특히 101세의 국내 최고령으로 정 교수의 심장중재술을 받았던 할머니와 신안군 섬에 거주하는 스님의 건강한 생활



모습도 방영된다. 또 장성 나노바이오센터에 있는 한국 심혈관계 스텐트 연구소에서의 전남대병원 스텐트 제작 과정과 돼지심도자 실서 돼지 심혈관

에 스텐트 시술하는 모습과 혈관치료용 마이크로로봇 실험 모습도 소개된다.

아울러 정 교수가 매일 새벽 5시30분에 출근해 6시30분부터 회전하는 모습, 새벽 응급환자 시술 그리고 돼지인형 모으기 취미 등도 소개될 예정이다.

현재 한국혈전지혈학회 이사장과 대한심장학회 의료정보이사를 맡고 있는 정 교수는 국내 최초로 세계 4대 심장학회 지도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했으며, 현재까지 1123편의 논문·61편의 저서·29건의 특허 등 탁월한 의료실적을 갖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정신 교수 '日 두개개저외과학회' 기조 강의

화순전남대병원 신경외과 정신(사진) 교수가 최근 일본 지바현에서 열린 '제26차 일본두개개저외과학회'에 연사로 초청받아 이틀간 두 차례에 걸쳐 초청 기조 강의를 했다.

일본 신경외과 전문의 약 5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학회에서 정신 교수는 '청신경초종의 안면신경과 청각신경 보존술에 관한 전략'과 '전두개저부에 발생한 뇌수막종에서 수술중 후각신경과 시신경 보존하는 수술법'에 대해 소개했다.

정신경초종은 뇌간부와 소뇌 사이에 위치하고 중요한 뇌신경들에 둘러싸여 있어 매우 고난이도의 수술 기법이 필요한 뇌종양이며, 두개개저부 수막종도 합병증 없이 전적출이 매우 어려운 뇌종양으로 알려져 있다.



정신 교수가 이끌고 있는 화순전남대병원 뇌종양클리닉·감마나이프센터는 전체 뇌종양 수술 중 상기 종양들과 같이 난이도가 높고 중증도가 매우 높은 수술이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우수한 수술 실적을 자랑하며, 국내에서 어려운 난치 뇌종양 분야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뇌종양클리닉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정 교수는 대한감마나이프방사선수술학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대한두개개저외과학회 차기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병원-동신대 광주한방병원-동신병원

양·한방 융합기술 개발 등 협약 체결

전남대병원(병원장 직무대행 김운하)과 동신대학교 광주한방병원(병원장 최진봉), 동신병원이 진료의뢰 협약을 체결(사진)하고, 지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가기로 했다.

이들 3개 병원은 최근 동신대 광주한방병원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양방·한방 융합기술 개발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신대학교 한방병원은 최근 보

건복지부 한의약분야 R&D 신규 사업에 선정돼 3년 동안 연 3억원씩 총 9억원을 지원받아 '뇌졸중 치료에 효과적인 양·한방 융합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동신대한방병원 침구과 김재홍 교수(연구책임자) 연구팀과 전남대병원 재활의학과 한재영 교수 연구팀이 공동 연구를 통해 난치성 질환 등 기존의 치료 한계 극복에 도전해 주목받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

에어컨 없이 살 수 있는 집

신속하고 간단한 뽀칠시공으로 **뿌려만주면 3~4°C** 실제 내부 온도가 차이가 난다면?

✓**이지골드코트**는 복사열로 인한 건축물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뽀칠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의 **복사열을 방지**합니다. 이제 후끈후끈한 열대야에서 해방되십시오.

주택 외벽, 계랑기와 지붕, 사료탱크, 돈사 지붕

적용범위: 신축 건물 및 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외벽, 옥상, 지붕 등
슬라브 구조 주택 옥상 / 슬레이트 지붕 / 아스팔트 영글 / 주택의 외벽 / 샌드위치 패널 벽체 및 지붕 기와지붕 / 계랑기와 지붕 / 아치판넬 구조 지붕 / 축사(우사, 돈사, 계사 등) 지붕 / 사료탱크 등

EG GOLD COAT 이지골드코트
대리점문의 본사: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 1607-19 T. 010-7514-3266 / T. 041-634-9909

(주)홍성이엔지
www.hsegreen.com

호남영업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1 T. 010-2028-5900 / T. 062-513-1400
대리점: 광주남구 T. 010-5679-8100 / 광주서구 T. 010-5609-3500 / 광주광산구 T. 010-3641-9680
광주북구 T. 010-9431-3445 / 전남순천 T. 010-3633-3663 / 전남여천 T. 010-2788-0392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뽀칠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산구 381-0061
서 구 352-7788
남 구 676-7719
북 구 512-7998

전라남도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 천 744-8605
여 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